

정답 및 해설 (A책형)

2015 지방직 9급

(2015. 6.27. 시행)

국어

이경복
교수



이경복 알맹이 국어

- 노량진 월비스고시학원 전임교수
- 월비스고시학원 부산캠퍼스 전임교수
- 한국공무원학원(대전) 전임교수
- 중앙고시학원(울산) 전임교수
- 우송대, 목원대 출강
- 다음카페 <이경복 알맹이 국어>

총평

가장 큰 특징은 문학에서 4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 문학 1문항 출제에 대한 반등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지방직9급에서는 출제가 흔치 않은 고전산문에서 3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반면, 전년도에 7문항이나 출제되었던 비문학독해는 4문항 출제로 다소 출제문항이 줄어 들었습니다.

문법 분야는 개정된 문장부호 규정, 용언의 활용, 단어의 품사, 조사의 쓰임, 적절한 단어의 선택, 올바른 어법, 언어예절 등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표준발음법과 외래어/로마자표기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자가 3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한자성어가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 오랜만에 표기 구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휘문제도 비교적 평이하게 고유어와 속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독해의 순서배열 문제, 고전문학의 시적 상황을 구체적인 작품들에 적용하는 수능형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반면 문법 문제와 어휘, 한자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문항분석을 보면

- 1) 문법 - 7문항 (적절한 단어의 선택, 문장부호, 용언의 활용, 단어의 품사, 올바른 어법, 적절한 조사의 사용, 언어예절)
- 2) 문학 - 4문항 (고전산문 3문항, 현대소설1문항)
- 3) 한자 - 3문항 (표기 구별, 한자성어 2문항)
- 4) 어휘 - 2문항 (고유어, 속담)
- 4) 비문학 독해 - 4문항(내용일치, 서술방식, 세부적 정보의 파악, 순서배열)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②	④	②	①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②	②	③	④	④	③	③

1. 정답 ④

보통사람들을 뜻하는 ‘갑남을녀(甲男乙女), 초동급부(樵童汲婦), 장삼이사(張三李四)’이다. 부창부수(夫唱婦隨)는 아내가 남편을 따른다는 뜻이다.

※ 2주전에 치렀던 서울시 7급 문제에서 초동급부, 부창부수 나왔는데 출제처가 다르다 보니 2주만에 또 나왔네요. 역시 기출문제 풀이는 중요합니다.

2. 정답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조화를 이루지만 함께 할 수는 없다. 즉,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 기풍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 사람끼리 모임

③ 동성이속(同聲異俗) - 사람은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달라짐. 자라면서 환경과 교육에 따라 달라짐을 이르는 말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①뜻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한자리에 있게 됨. ②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수일지라도 협력하게 됨.

※ 화이부동(和而不同)도 2013국가직에서 기출됐던 한자성어입니다. 충분히 그 뜻을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동기상구, 동성이속 같은 낯선 한자성어가 나왔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3. 정답 ①

分類(나눌 분, 무리 류) - 일정한 종류에 따라 가름.

分離(나눌 분, 떠날 리) -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함

區分(구분할 구, 나눌 분)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해 두어라. → 分類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 分離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 區分

※ 한자 표기 구별 문제 지방직9급에서 오랜만이네요, 근데 한자가 쉽네요, '쓰레기 분리' 라는 것만 알아도 ①번이 답이네요 ㅋ

4. 정답 ③

곰살궂다 -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꼼꼼하고 자세하다.

※ 고유어 나왔네요, 그런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1순위로 정리했기 때문에 '곰살궂다'의 정도의 의미는 평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무난히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답 ②

언발에 오줌 누기 - 동족방뇨. 임시변통.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석상대), 고식지계, 미봉책

※ 속담문제네요, 이 문제는 모두 맞았을 듯... 언발에 오줌 누기가 임시방편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zz

6. 정답 ④

- ①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 시답다: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
② 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를 뜻을 더하는 접미사
③ 밖에 있던 그가 금세 뛰어왔다. → 금세: 지금 바로
④ 건물이 부서진 지 오래되었다. → '부수다'의 어간 뒤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표현을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부서지다'가 '부수다'에 대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따라서 '부수어지다(부취지다)'가 아닌 '부서지다'로 해야 한다. '부취진'이 아니라 '부서진'으로 고쳐야 한다.
※ 지망직 9급이 선호하는 문제유형인 '적절한 단어의 선택' 을 묻는 어법 문제,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출제됐네요. '금새'와 '금세'의 구별이라든지 접미사 '-배기, -박이, -빼기'의 쓰임, '시답다' 어휘의 뜻 파악 하는 나머지 선택지들도 평소에 연습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니다.

7. 정답 ②

- 뭉음표(괄호)에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괄호()는 괄호 속의 음과 같을 때 쓰는 것이고 대괄호[]는 괄호 속의 음과 다를 때 쓰는 경우입니다.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나이'와 '年歲'는 음이 서로 다르므로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나이[年歲]
※ 하하하~~ 문장부호 나왔네요, 소괄호, 대괄호 문제 나왔네요, 마지막 짝기 특강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 부분이네요, 그런데 답이 되는 부분은 개정 문장부호 이전에도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던 핵심 사항이었습니니다.

8. 정답 ①

- 지문에서 에이젠슈테인이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다고 했을 뿐이다.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라는 ①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은 모두 지문 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②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③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④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번이 틀린 진술임이 쉽게 확인되네요,

9. 정답 ③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비(對比)하여 설명하는 글이다.

10. 정답 ④

- 지문의 앞부분에서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라고 지문에서 제시되었다. 따라서 ④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해체'가 아니다. 잠잠해질때까지 당분간 보내는 것이다.
※ 문제는 현대소설의 문학 문제인데 내용일치를 묻는 비문학독해 문제 같네요.

11. 정답 ①

- ① 그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신다. → '허구한'으로 고쳐야 한다. 허구하다: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여야겠구나. → 벌이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벌이다'는 '일, 싸움, 흥정, 좌판, 잔치'를 차려 놓다, 시작하대이고 '벌리다'는 '입, 팔, 다리, 자루'를 확장하대의 뜻이다.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서슴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기

본형이 '서슴다'하다. '삼가다', '서슴다'는 '~하다'를 쓰지 않는 용언이다.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가 맞다.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 서투르다: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루기에 어색하다. '서투르다/서툴다'는 복수표준어이다. '서투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서투른'이 맞다.

※ '허구헌'이 틀린 표기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강조했던 것이구요, '별이다'와 '별리다'의 구별, '서슴치'는 틀리고 '서슴지'가 맞다는 것, '서투르다/서툴다' 복수 표준어의 활용 모두 마지막 짝기 특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12. 정답 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을 묻는 품사 문제입니다. 형용사는 어미 '-는'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굳는'는 '굳다'에 '-는'이 결합되어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형용사입니다. ① - 동사, ②,③,④ - 형용사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 '는'이 붙으면 동사이고 형용사는 '는' 붙을 수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1번이 동사이라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의 관형사와 형용사의 구별 또한 수업시간에 품사 단원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구요, '새롭다'의 품사 구별 예시에서 '새롭게, 새로운, 새로이...' 예를 들었는데 나왔구요, '아프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도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지요.

13. 정답 ③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와/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평행(대등)구조이어야 한다. 전시회를 열지만 창작 활동을 여는 것이 아니므로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로 고친 것이다.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 '불려졌다'는 이중피동의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불렸다'로 고친 것이다.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중의성의 문장이다. '마음씨 좋은'의 대상이 할머니인지 손자인지 알 수 없다. 어순일 교체하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씨 좋은 손자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부정명사는 '에'를 유정명사는 '에게'를 쓰는 것이다. 단, 식물은 부정명사이다. '나무에'로 고친 것이다.

※ 유정명사, 부정명사 설명하면서 식물은 부정명사라고 강조했었죠... 그리고 '와/과'의 평행(대등)구조, 이중 피동의 비문법적인 표현, 수식의 중의성 문장 해소법도 모두 이론문법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14. 정답 ②

②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으로 고쳐야 한다. 목적격조사 '를'이 아닌 관형격조사 '의'를 결합하여 뒤에 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수식하는 것이다.

※ 적절한 조사의 쓰임 문제입니다. 관형격조사 '의'가 틀린 것이네요, 나머지는 모두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15. 정답 ②

'없다'의 직접 높임은 '안 계시다'이고 간접 높임은 '없으시다'이다. 직접 높임인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가 맞다.

※ 언어예절이네요, '있다'와 '없다'의 간접높임은 '있으시다', '없으시다'라고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그 것이 문제로 나왔네요, 그리고 지나친 고객존대의 의도로 '품절이십니다'가 아니라 '품절입니다'라고 고치고 '나라, 겨레, 민족'은 절대적 높임의 대상이라서 '저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앞에서 나온 '귀하'는 개인인데 '많이'가 아니라 '꼭'으로 고쳐야 합니다.

16. 정답 ③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감각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이다. 종을 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때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안다는 의미와 가깝다. 따라서 종을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17. 정답 ④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를 통해 무능력한 남편(양반)에 대한 아내의 비판, 질책 부분이다..④의 ‘아 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틀린 설명이다. 외경심(畏敬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지금 지문 상황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 존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지방직9급에서 흔치 않은 고전문학의 고전산문이 3문항이나 출제되었네요, 완전 대박입니다, 박지원의 <양반전> 인데요, 익숙한 지문이죠, 외경심이라는 단어의 뜻만 알았으면 무난히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정답 ④

판소리 <심청가>이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다. 사건에 대한 주관적 서술,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줌,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은 모두 지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한 부분은 없다.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19. 정답 ③

고전소설 <채봉감별곡>이다. 지문에서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적상황은 ‘작년에 임과 이별한 후 슬픔과 그리워하는 상황’이다.. ③의 <황조가> 역시도 ‘임과 이별한 후 슬픔’의 시적상황이다.

※ 가장 난해한 문제입니다, 수능형의 문제 유형입니다, 시적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을 물었는데 지문의 상황은 임과 이별한 후 슬픔과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②번은 제외됩니다, 허난설헌의 <빈녀음>인데 시집못 가는 여인의 한과 가난한 삶을 나타냅니다, ① <공무도하가>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슬픔과 한’ 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④정지상의 한시 <송인>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시적상황은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한 슬픔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별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동강에서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시적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인데,, 문제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제시해 주거나 표현기법과 연결시켜서 출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문제출제입니다,

20. 정답 ③

- (가) 기술 공학적 질서의 영향력
- (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기술적 질서
- (다) 기술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라) 주체로 등장한 기술의 중요성

순서 배열상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내용은 (가)단락이고 가장 나중에 올 수 있는 내용은 (라)단락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어를 통해 상반된 내용이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다)-(나)-(라)이다.

※ ‘그러나’ 라는 접속어를 통해 상반된 내용이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단락 다음에 (나)단락이 오는 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길어서 시간 잡아먹는 주범이었네요,